

杜門洞 七十二賢과 松隱 具鴻의 節義精神

구본욱*

|| 차례 ||

1. 서론
2. 두문동 72현이란 무엇인가?
3. 구홍에 대한 연구의 자료 및 검토
 - 1) 구홍에 대한 연구의 자료
 - 2) 구홍의 實紀의 편찬에 대해
4. 구홍의 생애·유적 및 절의정신
5. 表節祠와 杜門洞書院의 건립과 配享
6. 결론

【국문초록】

송은 구홍은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이다. '두문동 72현'이란 말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72인의 升堂弟子를 지칭하던 수와 관련을 지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독특한 용어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유교적인 不事二君 또는 守節不貳의 節義精神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구홍은 고려가 망하자 朴門壽, 成思齊 등과 더불어 不朝峴에 올라 "伯夷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伯夷何人, 我何人)"라고 자신의 뜻을 말하고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키다 운명하였다.

구홍을 비롯한 고려의 節臣이 숨은 곳을 두문동이라 하고 그들을 두문동 72현이라고 부른 것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일찍이 지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영조 이전까지의 공식적인 문헌인 實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구전으로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영조조에 이르러 두문동 72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 되었는데 영조는 두문동 72현의 유적에 碑石을 건립하고 致祭를 하는 등 그들의 절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후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받아 表節祠를 건립하여 두문동의 諸賢을 봉안하고 享祀를 지내게 하였다. 표절사는 고종 8년(1871)에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毀撤이 되었는데 1935년에 유림에 의하여 개성에 杜門洞書院으로 재건되었다.

두문동 72현의 절의정신은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나타난 한국유학의 의리정신의 원류로서 이후 한국인의 出處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具鴻, 松隱, 杜門洞, 杜門洞 72賢, 不朝峴, 掛冠峴, 表節祠, 杜門洞書院

1. 서론

송은 구홍은 고려 말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이다. 두문동 72현이란 고려의 社稷이 종말을 고할 때 고려의 遺臣으로서 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사람이다. 이들은 고려가 망하자 朝天冠을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蔽陽笠(패랭이)을 쓰고 두문동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조천관은 조정의 관원이 쓰는 冠을 말하는데 그들의 나라인 고려가 망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조천관이 필요가 없으므로 폐양립을 쓰고 不朝峴을 넘어 두문동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蔽陽은 '밝음을 가린다'는 뜻이고 笠은 '삿갓'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고려의 사직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밝은 태양(햇빛)을 가리는 삿갓, 즉 패랭이를 썼다는 것이다. 후대에 패랭이의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관을 벗어 걸고 넘어간 고개를 掛冠峴이라 하였고, 조선의 國祿을 받지 않고 은거한 洞里를 排祿洞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그 傳하는 지명을 통해서도 그들의 절의정신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문동 72현은 조선이 개국한 후 혁명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회유와 강압을 받았으므로 자연히 그들에 대한 논의는 금지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고증에서부터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절의정신을 연구하여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송은 구홍의 생애와 행적을 통하여 두문동 72현의 절의정신과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두문동 72현이란 무엇인가?

‘두문동 72현’이란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개국 혁명세력에 대하여 반대한 고려의 遺臣으로서 두문동에 들어가 節義를 지킨 忠臣 烈士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杜門洞의 ‘杜門’이란 말은 ‘문을 닫다’ 또는 ‘문을 막다’는 의미로 두문동이란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고¹⁾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洞里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을 개국한 혁명세력과 단절함으로써 不事二君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문동이란 명칭은 기존 존재하였던 지명이 아니라 고려의 節臣이 은거한 이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두문동 72인의 72인은 공자의 제자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史記』 「孔子世家」에 “공자의 제자는 3000명이나 되었는데 몸소 6藝에 통달

1)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 ① 杜門不出(『英祖實錄』, 권52, 『朝鮮王朝實錄』, 제42집, 679쪽.)
- ② 設衡門閉而不開(『杜門洞書院誌』, 권2 「松隱具先生 奉安文」, 16面 前後.; 『農隱先生實紀』, 권2 黃景源 撰 「行狀」, 1面 後)
- ③ 設門外閉而不開(『松隱先生實紀』, 권2 「杜門洞 東峴碑識」, 14面 後.)
- ④ 設門外閉不開(『麗朝忠烈錄』, 具鴻의 記事, 筆寫本, 奎章閣 도서번호 12713)
- ⑤ 設門於谷外閉而不開(『杜門洞書院誌』, 권1 「杜門洞 東峴舊碑陰記」, 17面 後)
- ⑥ 有門斯扃, 閉而不出(『松隱先生實紀』, 권2 「英廟朝 賜祭文」, 6面 前.)

한 제자는 72인이었다.”²⁾라고 하였다. 그리고 同書 「仲尼弟子列傳」에서는 77인이라 하고 77인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³⁾ 또 『孔子家語』에서는 “72인이라”⁴⁾하고 「七十二弟子解」에서는 76인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체로 『사기』와 『공자가어』의 공통의 수인 72를 공자의 升堂弟子⁵⁾의 수로 간주한다. 또 大體의 수, 즉 큰 수를 칭하여 70제자[子]라는 말로도 쓰인다.⁶⁾ 실제로 두문동 72현을 72子 또는 70子, 70子徒로 칭하고 있는 것⁷⁾을 보면 그 수에 있어서 공자의 高弟子인 尙堂제자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72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사람의 수를 지칭하기보다는 ‘다수의 賢人’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문동 72현’이란 말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高弟자를 지칭하던 수와 관련을 지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독특한 용어로서 고려 말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유교적인 不事二君 또는 守節不貳의 절의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구홍을 비롯한 태학생 林先味, 曹義生, 孟氏 등의 고려의 節臣이 숨은

2) 司馬遷, 『史記』, 권47 「孔子世家 第17」, 제6책(北京: 中華書局, 1982), 1938쪽. “孔子 …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 七十有二人.” 六藝는 ‘禮樂射御書數’이다.

3) 『앞의 책』, 권67 「仲尼弟子列傳 第7」, 제7책, 2185쪽. “受業身通者, 七十有七人.”

4) 王廣謨 句解, 『孔子家語』, 上卷 「七十二弟子解 第38」, 제3책(3책, 木板), 24쪽. “孔子七十二弟子.”

5) 『論語』에서 孔子가 제자인 子路를 평가한 말로 ‘升堂矣, 未入於室也.’에서 유래되었다.〔『論語集註』, 권11 「先進」, 14장, 影印本(서울: 京城書籍業組合, 1918), 372쪽.]

『孔子家語』에서는 72제자를 ‘升堂入室者’라고 칭하였다.〔『앞의 책』, 下卷 「七十二弟子解 第38」, 제3책, 29쪽.]

6) 『史記』, 권67 「仲尼弟子列傳 第7」, 제7책, 2226쪽. “太史公曰, 學者多稱七十子之徒.”

7) 具鴻, 『松隱先生實紀』, 권2 「杜門洞 東峴碑識」, 具然雨·具然侃 等編(大邱: 花樹亭, 2권 1책, 木板, 1909), 14面 前後.

『위의 책』, 권2 「杜門洞記」, 16面 前.

『위의 책』, 권2 「開城府儒生呈本營文」, 32面 後, 35面 前後.

곳을 두문동이라 하고 그들을 두문동 72현이라고 부른 것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일찍이 지칭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이 영조 이전까지의 공식적인 문헌인 實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구전으로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태종 12년(1412, 임진)에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고려조에 사헌부장령을 지낸 徐甄(호는 麗窩)이 衿州⁸⁾에 은거하며 살 때 고려에 대하여 사모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쓴 서건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죄를 줄(詰) 것을 청한 기사가 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천년의 신도가 한강 넘어 있는데(千載新都隔漢江)
 충성스런 신하들이 가지런히 밝은 임금을 돕네.(忠良濟濟佐明王)
 삼한을 통일한 공이 어디에 있는가?(統三爲一功安在)
 도리어 전조의 왕업이 길지 못함을 한하노라.(却恨前朝業不長)⁹⁾

이 五言古詩의 起·承의 앞 두 구절에서 ‘천년의 新都’와 ‘충성스런 신하들이 가지런히 밝은 임금을 돕네’라고 한 말은 조선의 개국을 찬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轉·結 후 두 구절의 ‘三韓을 통일한 공’이라고 한 말과 ‘전조의 왕업 즉 고려의 왕업이 길지 못함을 한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연중에 조선의 개국을 譏弄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즉각적으로 태종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태종은 “서건이 조선의 조정에서 벼슬을 아니하고 前朝의 신하로서 추모하는 시를 지

8) 현재의 경기도 시흥이다.

9) 國史編纂委員會 編, 『太宗實錄』, 권23, 12년 5월 17(경자)조, 『朝鮮王朝實錄』, 제1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68), 635쪽.

宋祖憲 編, 『景賢祠誌』, 권1 「麗季忠賢事蹟」, 徐甄 條, 제1책(6권 4책, 木活字, 1936), 55面 前.

었으니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서견이 北面하여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우리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¹⁰⁾라고 하면서 길재의 예¹¹⁾를 들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말 것을 下敎하였다.

이 예는 서견은 다행히 죄를 면할 수 있었지만 이미 당시에 고려의 遺臣 즉 두문동 72현의 행위는 상당히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논의는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우 중죄로 다스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태종조에 鄭夢周(1337~1392)에게 領議政府事의 贈職과 文忠이란 시호를 내리고, 세종조에는 그의 아들 鄭宗誠에게 判典農寺事의 관직을 제수하기는 하였으나¹²⁾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두문동 내지는 두문동 72현에 대한 말은 『英祖實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영조는 즉위 16년(1740, 경신)째 되는 해에 松都에 있는 齊陵¹³⁾과 厚陵¹⁴⁾을 참배[奉審]하기 위하여 8월 29일에 행차를 하여 경기도 파주에 駐次하였고¹⁵⁾ 이튿날 30일 저녁에 송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 송

10) 『太宗實錄』, 위와 같은 조, 636쪽.

11) 이 당시에는 태종이 서견에게 죄를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그 이전 定宗의 재위 때에 태종이 왕자로서 길재를 한양으로 불렀는데 길재는 마지못해 한양에 올라와 태종을 배알하였다. 태종은 길재에게 관직에 나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길재는 거절을 하고 고향인 善州(선산)로 내려갔으나 태종은 길재에게 죄를 줄 수가 없었다. [國史編纂委員會編, 『定宗實錄』, 권5, 2년(1400) 7월 2일(윤축)조, 『朝鮮王朝實錄』, 제1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68), 181쪽.]

12) 國史編纂委員會編, 『世宗實錄』, 권79, 19년(1437) 12월 1일(무오)조, 『朝鮮王朝實錄』, 제4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68), 117쪽.

13) 조선조 太祖의 妃 神懿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에 있음.

14) 조선조 2대 定宗과 정종비 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음.

15) 영조는 이보다 먼저 13년 8월 19일(윤해)에 경기도 楊洲에 있는 태조의 능인 健元陵과 여러 능을 참배[展謁]하였으며 돌아올 때에는 景宗의 능인 懿陵에 들러 참배[展拜]를 하였다.

도를 출발하여 輦을 타고 제릉으로 가면서 侍臣들을 보고 이르기를

‘不朝峴이 어느 곳에 있으며 그렇게 명명한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니 注書 李會元이 아뢰기를 ‘태종께서 과거를 設行하였는데, 本都(개성)의 大族 50여 家가 과거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또 그 동리를 杜門洞이라고 하였습니다.’¹⁶⁾

라고 하였다. 위의 기사에 ‘不朝峴’과 ‘杜門洞’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조현이란 태종이 과거를 設行하였는데¹⁷⁾ 고려의 遺臣이 과거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不朝峴’이란 의미는 ‘新朝인 조선의 왕에게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不朝]¹⁸⁾ 넘어간 고개[峴]’라는 의미로 즉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또 ‘杜門洞’이란 말은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杜門不出] 그 동리를 두문동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영조는 부조현 앞에 이르러 轎子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近臣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군신의 의리가 땅을 쓴 듯이 없어지는데 이제 부조현이라고 命名한 뜻을 듣고 나니, 비록 수백 년 후이지만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는 것과 같이 오싹함을 느끼게 한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승지에

16) 國史編纂委員會 編, 『英祖實錄』, 권52, 16년 9월 1일(기사)조, 『朝鮮王朝實錄』, 제42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70), 679쪽. ; 閔安富, 『農隱先生實紀』, 권2 「不朝峴碑」(4권 1책, 木活字, 1924 重刊), 10面 後. “不朝峴, 在于何處, 其命名亦何意也. 注書李會元曰, 太宗設科, 本都大族五十餘家, 不肯赴舉, 以是名也. 且杜門不出故, 又以杜門名其洞.”

17) 『松隱先生實紀』, 권2 「不朝峴碑陰記」, 3面 後와 金冲漢, 『樹隱先生實紀』, 권3 「不朝峴 事蹟」, 金學周 編(南原: 杜慕齋, 4권 1책, 木活字, 1923), 3面 後에서는 太祖가 과거를 設行하였다고 하였다.

18) ‘不朝’라는 말은 『論語』에 보인다.

『論語集註』, 권18 「微子」, 4장, 641쪽. “齊人, 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 ‘朝會’는 아침에 신하들이 正殿이나 便殿에 모여 임금에게 政事를 아뢰는 것.

게 명하여 七言詩 한 구를 쓰게 하니 '勝國忠臣勉繼世(고려의 충신들처럼 대대로 계승되기를 힘쓰라.)'라 하였다. 그리고 御駕를 따르던 玉堂과 승지·사관으로 하여금 詩를 이어서 지어 올리게 하였으며¹⁹⁾, 또 친히 '不朝峴' 세 글자를 써서 그 遺墟地에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

영조 27년(1751, 신미)에는 개성 留守 徐宗倬의 장계(狀聞)를 받고 두문동 72인의 충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고²⁰⁾ 또 御筆로서 "勝國忠臣 今焉在, 特豎其洞其節(고려의 충신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동리에 비석을 세워 그 절의를 표하노라.)"이라는 14자를 써서 내리고 비석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²¹⁾ 祭文은 다음과 같다.

維崇禎 紀元後 124년 辛未 10월 21일에²²⁾,

조선 국왕은 신하 개성부 유수 서종급을 보내어 두문동 중에서 고려의 여러 충신들의 영령에게 致祭하노라.

절의를 지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신하의 떳떳한 道요 충신열사를 表彰한 것은 禮章에 나타나 있도다.

우리 조선이 천명을 받아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에 순응하여 임금의 聖化가 온 세상에 미치니 모든 사람이 신하가 되었건만, 오직 고려의 사람 72인은 망국의 신하로 자처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들어간 동리가 있으니 어찌 문에 빗장을 걸어 닫고 나오지 아니하고 形跡을 숨겼는가. 비록 몸은 죽었으나 그 절의는 사라지지 아니하였나니 충절을 지켜 죽음에 이름에도 후

19) 이를 '不朝峴 聯句'라 하며 『松隱先生實紀』, 권2, 2面 前後에 실려 있다.

20) 이때의 祭官은 다음과 같다.

獻官 正憲大夫 行開城留守 徐宗倬, 典祀官 通訓大夫 行開城經歷 成大烈, 大祝 朝奉大夫 行成均館典籍 金時叔, 司儀 通訓大夫 行禮曹佐郎 李重彬, 祝史 從仕郎 行西學訓導 白尙約, 齋郎 通訓大夫 前行价川郡守 林奎冕, 史儀 前五衛將 馬聖河. [林先味, 『勝國忠臣杜門洞事實』 「碑閣圖」(2권 1책, 木活字), 1面 後.]

21) 『英祖實錄』, 권74, 27년 9월 27일(경인)조, 제42집, 416쪽.

22) 이 부분을 생략하여 없는 것과 維 乾隆(중국 淸 高宗의 연호: 1736~1795) 16년 歲次 辛未 10월 甲午朔 21일 甲寅'으로 기록된 곳도 있다. 崇禎은 중국 明 毅宗의 연호(1628~1644)로 모두 영조 27년의 다른 표현이다.

회함이 없었도다. 뒤에는 不朝峴이 있고 앞에는 掛冠峴이 있도다. 이름은 비록 다르나 그 뜻을 취함은 같으니 오직 曹와 林과 孟姓 세 사람만이 이름이 전하고 나머지는 기록이 되지 못하였도다.

내가 옛날에 이 곳을 지나가다가 遺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난날을 생각하니 감회를 그칠 수가 없구나. 사적이 점점 오래되고 문헌이 없어져 후세에 권장을 하려해도 표석이 없으므로 특별히 큰 글자 14자를 비석에 세겨 나의 뜻을 나타내었노라. 남긴 충열을 생각하여 후손을 찾아내어, 방위를 정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깨끗하게 제수를 장만하여 제사를 드리노라. 百世가 어찌 멀다고 하겠는가? 길이 風聲을 세우리라. 23)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영조는 부조현과 두문동에 비석을 세우고 두문동 72현에 致祭를 하는 등 두문동 72현의 절의를 그들의 신하들에게 본받게 하여 자신의 시대를 治世로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禁書으로 되어 있던 杜門洞 諸賢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3. 구홍에 대한 연구의 자료 및 검토

1) 구홍에 대한 연구의 자료

두문동 72현은 고려가 망한 뒤 350여년간 그들에 대하여 언급할 수 없었

23) 『松隱先生實紀』, 권2 「賜祭文」, 5面 後~6面 後. “維 崇禎紀元後, 百二十四年, 辛未, 十月二十一日, 朝鮮國王, 遣臣開城留守徐宗伋, 諭祭于杜門洞中, 高麗諸臣之靈. 守節不貳, 臣道之常, 顯忠褒烈, 著在禮章. 我朝受命, 應天順人, 聖化攸及, 率普皆臣, 爰有麗民七十有二, 罔臣罔僕, 自靖其志. 有洞曰, 何有門斯扃閉而不出, 晦跡匿形. 其身雖廢, 其節不沫, 抱忠守貞, 矢死靡悔. 後有不朝, 前有掛冠. 顧名雖殊, 取義則班, 惟曹惟林惟姓之孟傳者, 有三餘無記省. 予昔歷茲, 顧詢遺址, 疇昔興感, 予懷曷已. 事蹟漸遠, 文獻莫徵, 欲權于後, 其無褒稱, 大書特書, 有十四字, 庸豎貞珉, 庸褒予意. 想像遺烈, 搜訪後裔, 相方相位, 以壇以祭, 牲酒既潔, 黍稷惟馨. 百世何遠, 永樹風聲.”

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유적과 문헌이 보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구홍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고려말에 左侍中(종1품)을 역임하였고 조선의 太祖가 좌정승을 제수하며 개국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文節이란 시호가 내려진 相臣임에도 『高麗史』에 密直副使(정3품) 때에 기록된 1조²⁴⁾를 제외하면 『朝鮮王朝實錄』에도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 역사의 기록이 조선의 혁명세력에 의하여 再編纂된 점에 비추어보면 구홍이 그들의 혁명에 반대한 두문동 72현의 首賢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홍에 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구홍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正史에는 그 기록이 부족한 반면 家乘이나 碑文 및 후인이 저술한 민간의 기록, 즉 野史에는 구홍의 節義를 증명할 만한 문헌과 유적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특히 가승이나 비문의 경우에는 대체로 과장 내지는 變造, 假託²⁵⁾ 등의 虛僞的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문헌이 역사적인 사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헌에 대한 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홍의 行蹟에 관한 자료는 후손을 통하여 전하여져왔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문헌으로 정립이 된 것은 栢潭 具鳳齡(1526~1586)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구봉령은 그의 문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의정 洪暹이 '경기도 관찰사로 재임 중 松京을 순시할 때 송경의 남대문 밖의 들판에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古碑가 우뚝하게 서 있었는데 거기에 高麗 左侍中 具鴻之墓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²⁶⁾

24) 『高麗史』, 禍王 11년조.

金澤榮 編, 『松陽耆舊傳』, 前篇 권1, 16面 前後.

25) 碑文(墓碣銘) 등을 자신들이 짓고 당시에 名望이 있거나 官職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盜用하여 사용하는 경우.

26) 『松隱先生實紀』, 권2 「上疏」, 25面 後. "余聞, 洪領相暹之言, 則洪相以京畿監司, 巡到松京, 南大門外, 見古碑屹立荒草田野間, 題曰高麗左侍中具鴻之墓."

忍齋 洪暹(1504~1585)은 宣祖祖에 영의정을 역임한 相臣으로서 退溪 李滉(1501~1570)과 교유한 명재상이다. 구봉령 역시 퇴계의 문인으로 홍섬과 교유를 하였는데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홍섬이 경기도 관찰사로 개성을 순시할 때 고려의 왕궁 터의 남대문 밖에 들판[野]에 구홍의 유적인 비석이 잡초 속에 우뚝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홍섬이 말한 ‘高麗 左侍中 具鴻之墓’라는 것은 ‘高麗 左侍中 具鴻之遺墟碑’ 내지는 遺蹟碑, 遺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구홍의 묘는 남대문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들판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 말이다. 구홍은 송경에 거주할 때 들 가운데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初號를 野隱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²⁷⁾ 이것으로 보면 구홍이 평소에 거주한 지역에 후인이 그의 절의를 추모하여 유적비를 세웠다고 하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杜門洞書院誌』의 「杜門洞圖」에 의하면 安文成公 遺墟碑(安珣, 1243~1306), 李益齋 碑(李齊賢, 1287~1367), 養浩堂 遺址(禹玄寶, 1333~1400), 宋貞烈公 遺址²⁸⁾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구홍이 살았던 동리, 즉 遺址에 그를 추모하는 碑가 건립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구봉령은 八谷 具思孟(1531~1604)과 함께 『綾城具氏族譜(을해 대동보, 선조 8년, 1575년)』를 처음으로 편집하여 발행(1576년)을 하였는

27) 구홍은 趙狷, 元宣과 더불어 두문동의 松山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號를 野隱에서 松隱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野史에 의하면, 후에 이방원이 두문동에 불을 질러 두문동을 폐쇄하자 두문동 72현은 각기 흩어졌다고 한다. 領相 南公轍이 지은 「高麗逸民傳」과 규장각의 「麗朝忠烈錄」에는 구홍에 대하여 “처음에는 두문동에 들어갔는데 후에는 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遯野 또는 遯居野] 타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만년에 遺址인 들[洞里]로 돌아와 운명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28) 孔聖學 編, 『杜門洞書院誌』, 「杜門洞圖」(開城: 杜門洞書院事務所, 3권 1책, 1937), 首編의 圖面.

데 이 족보의 구홍에 관한 조항에서 “重大匡 沔城君”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구봉령은 구홍의 5대조 同平章事 具民瞻의 비문을 지었는데 이 비문에서 구홍에 관하여 “좌시중”²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 구봉령은綾城과 沔川의 선조에 관한 祭文, 祝文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저술하고 있다.

이상 구봉령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구홍은 고려조에 품계는 ‘중대광’이고 관직은 ‘좌시중’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성군’에 봉하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홍의 시호[諡]에 관하여는 전혀 기록이 없다.

그 다음으로 尤庵 宋時烈(1607~1689)이 지은 崇禎處士 蹈海亭 具諱(1606~1666)³⁰⁾의 墓碣銘의 기록이다. 이 묘갈명은 구봉령의 기록보다 구홍에 관하여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에 구홍의 절의를 증명하는데 더욱 중요한 자료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구혜의 묘갈명에 기록된 구홍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구혜)의 8세조는 구홍인데 관직은 三重大匡이요 沔城府院君이다. 고려가 멸망할 때 두문동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태조대왕께서 좌정승으로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아니하고 두문동에서 운명하였다. 文節이라 시호가 내려졌다. 공(구홍)이 운명할 때 조선조의 관직함(官啣)을 쓰지 말라고 遺命(유언)을 하였다.³¹⁾

29) 具鳳齡, 『栢潭先生文集』, 권9 「墓表」, 先祖 高麗 同平章事府君 墓表, 제4책(安東: 東岡書堂, 10권 4책, 1670 초간, 1934 重刊), 39面 前.

30) 慶北 義城郡 佳音面 尊湖洞에 具諱를 추모하는 齋室인 蹈海窩가 있다.

31) 『松隱先生實紀』, 권2 「上疏」, 25面 前後. “先正臣文正公 宋尤庵文集, 有蹈海處士 具諱墓文曰, 公八世祖鴻, 官至三重大匡, 沔城府院君, 麗末(亡)入于杜門洞, 我 太祖大王以左政丞徵之, 終不就, 終于杜門洞. 賜諡文節, 公以遺命不書我 朝官啣(銜).”()안은 구혜의 비문에 쓰인 문자임.

위의 비문을 살펴보면 구홍은 고려조의 최고의 품계(관직)인 '삼중대광'에 이르렀고 '면성부원군'에 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 두문동으로 들어갔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개국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하였으나³²⁾ 거절을 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할 때 유언으로 조선의 이태조가 내린 관직을 銘旌에 쓰지 말 것을 유언하였으며 文節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구혜의 비문에서는 구봉령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실을 알려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직 등의 외적으로 나타난 사실 뿐 아니라 그의 절의정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태조가 좌정승을 제수하고 불렀다는 것도 구홍이 『고려사』에 이태조와 같은 '武官이었다'³³⁾는 기록으로 보아 더욱 신뢰할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보면 구홍은 고려조에 품계는 '삼중대광'이고 관직은 '좌시중'으로 '면성부원군'에 봉하여졌으며 시호는 '문절'이다. 그리고 고려 두문동의 72현으로 두문동에 들어가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충신이라는 것이다.

위의 두 기록은 두문동 72현에 대한 논의가 보편화되지 않은 영조 이전에 이루어진 자료란 점에서 구홍의 절의정신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영조 이후에 나타난 자료로는 대제학 江漢 黃景源(1709~1787)이 지은 「농은 민안부 행장」에 구홍에 관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太學生 文節公 具鴻'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군수 邊胤宗의 「不朝峴 言志錄」, 領相 南公轍의 「高麗逸民傳」, 佐郎 吳羽常의 「杜門洞 祀典識」, 「麗史補遺」, 영상 金堉의 「松都誌」, 판서 徐有防의 「松京續誌」, 牧使 趙德常의 「海東

32) 『松隱先生實紀』의 권2 「家狀」 13面 後에는 3번 불렀다고 함.

33) 『高麗史』, 禍王 11년조.

忠義錄』, 右副承旨 徐鼎輔의 『杜門洞 遺事』, 『勝國名流標榜錄』, 『奎章閣 忠烈錄』, 『景賢祠誌』 등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2) 구홍의 實紀의 편찬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홍에 관한 자료는 후손인 구봉령의 문집과 구혜의 비문의 기록에서부터 영조 이후에 나타난 후인의 두문동 72현에 관한 저술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던 구홍에 관한 자료는 영조 이후에 나타난 두문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함께 수집되어 실기로 편찬이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실기의 단행본으로는 현재 『綾城具氏文集』과 『松隱先生實紀』, 『松隱先生實紀補遺』, 『松隱先生文獻錄』, 『松隱先生杜門史』의 5종이 있다. 여기에서 『송은선생문헌록』은 『능성구씨문집』을 영인하고 책의 제목을 개칭한 것이고, 『송은선생두문사』 역시 『능성구씨문집』을 영인하고 해석을 첨부하고 책의 제목을 다시 개칭한 것이다.³⁴⁾ 따라서 실제로 구홍에 대한 실기는 『능성구씨문집』과 『송은선생실기』, 『송은선생실기 보유』의 3종으로 보면 된다.

위의 실기를 살펴보면 『능성구씨문집』은 純祖朝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나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송은선생두문사』에서 이 책의 유래에 대하여 『능성구씨문집』은 '崇禎紀元 三乙未 季春日 始板刊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즉 영조 51년(1775) 음력

34) 『松隱先生文獻錄』과 『松隱先生杜門史』의 차이점은 『송은선생문헌록』은 『綾城具氏文集』을 원문 그대로 影印을 한 것이고, 『송은선생두문사』는 『능성구씨문집』의 원문을 영인을 할 때 「序文」뒤에 첨부되어 있던 「附遺感」이 구봉령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조 이후의 기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대가 맞지 않으므로 이것을 삭제하고, 「目錄」이 또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목록'을 삭제하고 영인을 한 점이 다르다. 『능성구씨문집』은 문집으로 칭하였으나 실제로는 實紀이다.

3월에 처음으로 간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 실린 서문의 연대³⁵⁾와 책의 내용에 정조 이후의 자료가 다수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조조에 발행이 된 것은 아니다.

『능성구씨문집』은 영조 이후에 나타난 두문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구홍과 직접 관련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卷의 구분 없이 1책으로 편찬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실기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農隱 閔安富의 실기인 『農隱先生實紀』³⁶⁾와 樹隱 金冲漢의 실기인 『樹隱先生實紀』³⁷⁾를 변조하여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능성구씨문집』에 수록된 「서문」 2편과 『농은선생실기』에 실린 「서문」 2편을 살펴보자. 『능성구씨문집』과 『농은선생실기』에 실린 2편의 「서문」은 지은이[撰者]와 내용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능성구씨문집』의 서문이 『농은선생실기』의 「서문」을 변조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은선생실기』의 「서문」은 淵泉 金履陽(영조 51년, 1755~헌종 11년, 1845)과 訥窩 李若烈(영조 41년, 1765~헌종 2년, 1836)이 지은 2편의 「서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농은선생실기』의 「서문」과 『능성구씨문집』에 수록된 「서문」을 비교하여 단순한 字句의 오류와 구절의 삽입은 제외하고 변조된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이 책에 실려 있는 2편의 「서문」중 金履陽의 「서문」은 '戊子 元月 上澣(1828)'이고, 李若烈의 「서문」은 '崇禎紀元後 (四)辛卯 八月 上澣(1831)'으로 위의 발행 연도에 부합되지가 아니한다. 『능성구씨문집』에 실린 이약렬의 「서문」은 '崇禎紀元後 辛卯 八月 上澣(1651)'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崇禎紀元後 四辛卯 八月 上澣'의 誤記이다. 『農隱先生實紀』의 「서문」에도 잘못 표기되어 있다.

36) 『農隱先生實紀』(4권 1책)는 1831년에 목판으로 간행이 되었고 1924년에 중간되었다. 발문은 1830년 宋欽大가 쓰고 중간 발문은 1924년 閔致亮이 썼다.

37) 『樹隱先生實紀』(4권 1책)는 1923년 南原 杜慕齋에서 목활자로 발행이 되었다. 서문은 1827년(崇禎 4丁亥)에 李度憲이 쓰고, 발문은 1824년(崇禎 4甲申)에 李度中과 1920년에 田愚가 썼다.

〈『농은선생실기』 「서문」〉

김리양의 서문 중

공의 후손 (민)百闇이 일찍이 세상에 나타난 문자를 수집하여 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 족손 (민)致永이 이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弁卷(서문)의 글을 청하였다.(公後孫百闇, 嘗哀輯其沿壘文字之著於世者, 而劖劖之未就, 而其族孫致永, 繼而成闕志, 乞余以弁卷之言.)

이약렬의 서문 중

어느 날(一日)선생의 후예 (민)在南甫가 실기 한 꾸러미를 보이면서 弁卷의 글을 청하였다.(一日先生之後裔, 在南甫, 袖示實紀一沓, 而請以弁卷之文.)

〈『능성구씨문집』 「서문」〉

김리양의 서문 중

공의 후손 某가 일찍이 세상에 나타난 문자를 수집하여 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 족손 某가 이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弁卷의 글을 청하였다.(公後孫某, 嘗哀輯其沿壘文字之著於世者, 而劖劖之未就, 而其族孫某, 繼而成闕志, 乞余以弁卷之言.)

이약렬의 서문 중

어느 날(一日)선생의 후예 沔川甫가 실기 한 꾸러미를 보이면서 (弁卷의 글을 청하였다.)(一日先生之後裔, 在沔川甫, 袖示實紀一沓.)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은선생실기』의 「서문」에서는 이 책을 편찬한 사람과 「서문」을 요청한 사람의 實名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능성구씨문집』의 「서문」에서는 '후손 某', '족손 某', '沔川甫³⁸⁾'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실명을 삭제하고 있다.

38) 존칭으로 '님'이다.

이와 같이 ‘文集’이나 ‘實紀’를 편찬할 때 책을 편찬하게 된 경위나 편찬한 사람, 서문을 요청한 사람³⁹⁾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내용을 변조하거나 假託 등의 僞作을 할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태이다. 이것은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책임의 소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밝힌 두 편의 「서문」외에도 문집에 수록된 문헌의 42편(서문 2편 포함, 시 3편 제외) 중에서 21편의 자료가 변조되어 수록되어 있다. 『능성구씨문집』에 실린 문헌 중 변조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綾城具氏 文集序(金履陽, 李若烈 序文, 2편), 行狀(黃景源 撰 農隱 閔安富 行狀 중에서 발췌한 부분), 高麗名臣傳, 杜門洞記蹟碑文, 上疏(留守 徐有防), 表節祠 事實, (杜門洞) 遺事,

正廟朝傳教(6편): 嶺南儒生呈文, 館學儒生抵松都儒生通文, 太學與四道儒生呈文, 四道儒生再呈文, 館學儒生再呈文, 開城儒生呈文,

狀啓(留守 吳翰源), 禮曹回 啓, 領相獻議, 禮曹回 啓, 禮曹關文, 表節祠 追享告由祝文, 奉安文.

『능성구씨문집』에서 위와 같이 많은 자료를 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정조조와 순조조를 거치면서 두문동 72인 중에 表節祠에 배향된 인물은 임선미, 조의생, 맹씨, 성사제, 박문수, 민안부, 김충한 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앞의 5명은 먼저 배향되고 민안부와 김충한은 그 후에 함께 배향이 되었다. 민안부와 김충한을 표절사에 배향해 줄 것을 요청한 유림의 상소문은 두 사람이 함께 작성이 되어 함께 배향이 되었는데 여기에 구홍을

39) 위에서 말한 ‘책을 편찬하게 된 경위’나 ‘편찬한 사람’, ‘서문을 요청한 사람’은 文集이나 實紀의 序文이나 跋文을 작성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예외적으로 부득이 이러한 기본요소를 생략할 경우에는 그 분량이 많아서 板刻이나 石物에 다 세기기가 어려울 때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當代(비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동시대) 人事의 實名이 비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나타나지 아니할 경우 僞作일 가능성이 크다. 碑文(墓碣銘), 行狀, 記文 등도 동일하다.

그 상소문에 삽입을 하여 3명이 함께 배향이 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변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는 『송은선생실기』와 『수은선생실기』가 간행이 되고,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변조해 가면서 실기를 편찬할 수 있는지 논자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先祖의 행적에 뉘가 됨을 알지 못한 無知의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능성구씨문집』이 僞作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송은선생문헌록』과 『송은선생두문사』⁴⁰⁾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능성구씨문집』이 위작으로 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송은선생실기』를 편찬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은선생실기』는 1909년(순종 3년, 己酉)에 대구 북구 無怠(동변동)의 花樹亭에서 편찬하여 목판으로 2권 1책을 간행하였는데 이 때 『능성구씨문집』을 참고로 하였다.

『송은선생실기』에서는 『능성구씨문집』에서 변조되지 않은 자료는 그대로 수록을 하였고⁴¹⁾, 앞에서 제시한 변조된 자료는 모두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판서 趙遠命(1676~1749)이 지은 「杜門洞東峴碑識」와 영의정 南公轍(1760~1840)이 지은 『高麗名臣傳』에는 첨가된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을 하여 수록을 하였다. 「두문동 동현비지」를 살펴보자.⁴²⁾

40) 위의 두 책은 『綾城具氏文集』이 僞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具憲書氏가 1984년(단기 4317)에 영인하여 재발행을 하였다.

41) 『松隱先生實紀』에서 『綾城具氏文集』의 자료를 그대로 수록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不朝峴聯句, 不朝峴碑, 傳旨, 杜門洞碑, 禮吉了, 賜祭文, 書筵達辭, 賜祭文, 杜門洞碑閣上樑文, 高麗逸民傳, 高麗逸民傳贊, 杜門洞記, 杜門洞典祀識, 麗史補遺, 松都誌, 松都續誌, 海東忠義錄, 上疏.

42) 『松隱先生實紀』, 권2 「杜門洞東峴碑識」, 14面 前. 『綾城具氏文集』에서는 「杜門

고려 말에 절의로 칭하여진 사람으로는 정문충(몽주), 길야은(재), 구야은(홍) 같은 수 3명이다. (麗末有節義, 稱有鄭文忠 吉冶隱 具野隱, 數三賢. 『능성구씨문집』)

고려 말에 절의로 칭하여진 사람으로는 정문충(몽주), 길야은(재) 같은 몇 사람이다. (麗末以節義, 稱有鄭文忠 吉冶隱, 數賢. 『송은선생실기』)

그리고 『송은선생실기』에서 크게 주목을 할 점은 『능성구씨문집』에서 민안부와 김충한을 표절사에 배항하기 위하여 상소한 呈狀에 구홍을 삽입하여 수록한 ‘정묘조 전교’ 6편을 삭제하고, 구홍을 표절사에 배항하기 위하여 순조조에 개성 유수에게 유림이 상소를 한 통문 및 呈狀 5편을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은선생실기』에 수록된 정장은 다음과 같다.

太學通文 癸未(1823) 9월
 開城府成均館進士呈本營文
 四道儒生呈開城府文 甲申(1824) 2월
 開城府儒生呈本營文 甲申(1824) 11월
 四道儒生再度呈開城府文 乙酉(1825) 3월

위에서 제시한 5편의 통문과 정장에 나타나 있듯이 구홍을 표절사에 배항하기 위하여 순조 23년(1823, 계미)에서부터 25년(을유)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친 유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임금의 允許를 받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장에 구홍의 두문동 유적 및 행적, 절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홍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송은선생실기』에는 謹窩 具然侃(1844~1916)이 지은 家狀과

洞記蹟碑文』이라 하였다.

판서 具允明(1711~1797)이 지은 구홍의 부친인 文貞公 具禕의 비문이 유일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다.⁴³⁾ 이 비문 역시 구홍의 연구 자료로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다.

『松隱先生實紀補遺』는 실기를 편찬할 때 판각의 경비 등으로 인하여 실기에 실리지 못한 자료를 琴愚 具然雨(1843~1914)가 필사하여 전한 것이다. 구연우는 한양에 머물고 있을 때 개성을 방문하여 선조 구홍을 비롯한 두문동 72현의 유적과 영조조에 건립된 비석과 表節祠를 돌아보고 손수 松京舊都의 地圖와 杜門洞 七十二賢의 建祠圖를 그려 가지고 돌아왔다.⁴⁴⁾

이 보유에는 「旌善居七賢」, 「華海師全」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구홍의 고조부인 贈門下左政丞 沔城府院君 具珮의 묘소에 대한 오랜 분쟁을 종결하는 茂長⁴⁵⁾의 吳氏門中과 능성구씨 사이에 이루어진 '山所定界 和同文'이 실려 있는데 이 자료 역시 능성구씨 문중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문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홍에 관한 주요한 연구 자료로는 『송은선생실기』와 『송은선생실기보유』에 거의 대부분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구홍의 생애·유적 및 절의정신

송은 구홍은 고려조에 中顯大夫 少府尹(종4품)을 역임한 具禕⁴⁶⁾와 慶

43) 『松隱先生實紀』, 권2 「文貞公碑文」, 23面 前~24面 前.

44) 具然雨, 『琴愚集』, 권2 具晟書 撰 「行狀」 具泰書 編(大邱: 琴愚堂, 2권 1책, 石版, 1933 초간, 1999 중간), 21面 後.

이 두 圖는 『琴愚續集』, 具滋善 編(大邱: 琴愚堂, 2권 1책, 1999), 81面 前後에 실려 있다.

45) 全北 高敞郡 茂長面으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의 익산면 반암리이다.

46) 朴彭年 等奉教撰; 成三問 等奉教註, 『車原頰雪冤記』, 上篇(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56), 41쪽; 「위의 책」, 車原頰雪冤記 編纂委員會 編譯(서울: 朝光

州朴氏 사이에 5남 중 장남으로 開城의 墨寺洞에서 태어났다. 구홍의 집안이 개성의 묵사동에 거주한 것은 구홍의 증조부 判典儀寺事 면성부원군 具藝 때 처음으로 沔川⁴⁷⁾에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구홍의 初名은 成斗이고 본관은 綾城⁴⁸⁾이다. 구홍은 고려가 망하자 鴻으로 改名을 하였는데 이것은 『논어』의 “色斯舉矣”⁴⁹⁾에서 그 뜻을 취하였다. “색사거의”라는 말은 ‘일이 일어날 조짐[幾]을 보고 미리 대처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사직이 기울어질 것을 알고 자신이 亡國大夫로 절의를 지키면서 살 것을 미리 정한다는 뜻이다. 기러기는 이러한 조짐 즉 기미를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홍은 여기에서 취하여 기러기 ‘鴻자’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不事二姓之義의 절의를 나타낸 것이다.

구홍의 생졸년은 전하지 아니하는데 禡王(재위 1375~1388) 때에 密直副使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 활약하였으며 조선조 태종 때에 逝世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구홍의 묘는 개성의 禮成江 上流 義菴洞 癸坐原에 부친 구위의 묘 아래에 있다.

구홍은 관직은 三重大匡 門下左侍中(종1품)에 이르렀는데⁵¹⁾ 구홍의 관직이 좌시중에 오름에 그의 부친 구위에게 三重大匡 門下左政丞 特進

出版社, 1998), 104쪽에는 ‘綾城人 副使 具禕’라 하였음.

47) 忠南 唐津郡 沔川面으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의 송악면 가교리이다.

48) 현재의 全南 和順郡 綾州面이다. 능성은 인조의 母后인 仁獻王后의 관향으로 인하여 인조 10년(1632, 임신)에 綾城縣에서 綾州牧로 승격되기 이전의 명칭이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仁祖實錄』, 권26, 10년 5월 3일(경자)조, 『朝鮮王朝實錄』, 제32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70), 484쪽.]

49) 『論語集註』, 10권 「鄉黨」, 17章, 356~357쪽. “色斯舉矣, 翔而後集.”

50) 「家狀에 서는 태조 때라고 하였으나 규장각의 『麗朝忠烈錄』에는 태종 때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麗朝忠烈錄』에 의거하였다.

51) 공민왕 18년에 문하시중을 門下 左侍中 右侍中으로 개편을 하였는데 문하 좌시중은 최고의 관직인 문하시중을 말한다.

輔國崇祿大夫 寶文閣 大提學 兼 判義禁府事 知吏曹事 沔城府院君의 관직(종2품)과 봉호가 증직되었으며 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게 되었다.⁵²⁾

구홍은 조정에서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하였으며 간교한 신하들을 억제하였다고 한다. 특히 구홍은 禹玄寶, 朴尙衷과 더불어 불교의 폐단을 깊이 근심하고 침체된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학교를 세울 것을 주창하였다.⁵³⁾

마침내 고려가 망하자 朴門壽, 成思齊 등 諸賢과 더불어 不朝峴에 올라 그 뜻을 말하기를 “伯夷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伯夷何人, 我何人)”⁵⁴⁾라고 하고 72현과 더불어 두문동의 松山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初號인 野隱을 松隱으로 고쳤다고 한다.

또 『旌善邑誌』에 의하면 구홍은 ‘旌善居七賢’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문동이 폐쇄되자 採薇軒 全五倫, 牧隱 李穡(1328~1396), 忠齋 崔文漢, 麗窩 徐甄, 耘谷 元天錫(1330~?), 治隱 吉再(1352~1419)와 더불어 정선에 은거를 하였다고 한다. 정선에서 7현이 은거하며 亡國의 恨을 노래한 것이 ‘정선아리랑’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정선역전 광장에 이를 기리기 위하여 ‘桃源歌曲碑’가 있다.⁵⁵⁾

구홍이 남긴 ‘述懷’ 시 한편을 통하여 그의 절의정신을 살펴보자.

의롭지 못한 부귀는(不義之富貴)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於我如浮雲.)
돌밭에도 세봄[王春]⁵⁶⁾이 돌아오니(石田王春在)

52) 『松隱先生實紀』, 권2 具允明 撰 「文貞公 碑文」, 23面 後.

53) 『松隱先生實紀』, 권2 「家狀」, 39面 前.

54) 伯夷와 叔齊는 중국의 殷[商]나라 말기에 孤竹君의 두 아들로 周나라 武王이 紂를 치려고 하자 말고뻐를 잡고 불가함을 諫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 죽었다고 함. 후세에 節義의 師表가 됨. 采薇歌가 전한다.

55) 高麗崇義會 編, 『麗末忠義列傳』(서울: 고려송의회 출판부, 1994), 152~153쪽.

호미들고 날 저물도록 김을 매네.(揮鋤朝暮耘)⁵⁷⁾

이 5언고시의 起·承의 2句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⁵⁸⁾인데 이 구절에 자신을 의탁하여 轉·結의 2구로서 자신의 杜門自靖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돌밭에도 새봄이 돌아온다’는 ‘새봄’ 즉 ‘王春’은 왕씨의 봄, 즉 고려를 은유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여 부귀를 누리는 것 보다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키며 亡國의 大夫로 살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낸 것이다.

5. 表節祠와 杜門洞書院의 건립과 配享

영조는 즉위 27년(1751, 신미)과 29년에 두문동 72현의 후손을 관직에 등용(調用)하도록 명을 내리고 31년에는 임선미의 후손인 林瑞樞를 관직에 등용하도록 하였다.⁵⁹⁾ 영조는 이와 같이 두문동 72현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表彰하고 致祭를 드리는 등 두문동 72현의 절의를 신하들에게 본받게 하고 비석을 세워 후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받아 표절사를 건립하여 두문동 72현을 사당에 배향하고 享祀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것은 즉위 7년(1783, 계묘) 7월 14일

56) 음력 ‘正月’의 판이름. ‘王月’, ‘王春月’이라고도 한다.

王春이라는 말은 『春秋』 「公羊傳」 「隱公 元年」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유래되었다. “元年春, 王正月 … 春者何? 歲之始也; 王者孰謂? 謂文王也.” 后以‘王春’, 指陰曆新春.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 초간, 1988 중간), 제6책, 291, 314쪽.]

57) 『松隱先生實紀』, 권1 「述懷」, 1面 前.

58) 『論語集註』, 권7 「述而」, 15장, 236쪽. “子曰,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

59) 『英祖實錄』, 권86, 31년 12월 23일(임술)조, 제43집, 606쪽.

에 개성부 유수 徐有防의 상소로 인한 것이었다. 서유방은 다음과 같이 상소를 하였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충신을褒獎하고 절의를 장려함은 나라의 큰 恩典입니다. 무릇 前朝의 사람으로서 의리를 지키고 몸을 마친 곳에는 列聖朝가 포장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院祠를 세워 享祀를 드리게 하고 棹楔을 세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두문동 太學生 72인의 우뚝한 충절은 진실로 鄭夢周·吉再 등의 제현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72인 중에 이름 전하는 사람은 曹義生·林先味, 姓이 孟氏인 세 사람뿐인데 맹씨는 성만 전해지고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 그 뒤에 … 祠宇를 세워 英靈을 봉안할 뜻을 陳達하려고 하였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 오직 우리 성상께서 등극하신 이래로 무릇 忠節을 포장하시고 孝烈을 旌表하셨습니다. …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三賢을 享祀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밝으신 임금님께 累가 되는 일입니다.

本府에는 崇節祠가 있습니다. 故 府使 宋象賢·고 부사 金鍊光·副元帥 劉克良은 이 곳에서 生長하여 임진년(왜란)에 節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朝家에서 賜額을 내려 이들에게 祭享을 드리게 한 곳입니다. 이 祠宇에다 세 사람을 함께 배향하여 향사를 드린다면 다 절의를 지킨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므로 실로 합당하오니 該曹에 명하여 稟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⁶⁰⁾

위의 상소문을 살펴보면 두문동 72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祠宇를 건

60) 國史編纂委員會 編, 『正祖實錄』, 권16, 7년 7월 14일(계묘)조, 『朝鮮王朝實錄』, 제45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70), 384쪽. “伏以, 褒忠獎節, 有國之大政. 凡係前朝人, 秉義立權之地, 皆蒙 列聖朝, 褒獎之典, 院祠之享, 棹楔之舉, 在在相望. 獨杜門洞太學生, 七十二人之卓忠節, 實無愧於鄭夢周吉再諸賢之成就, 而七十二人中, 傳其名者, 有曹義生林先味孟姓三人, 而孟則傳姓而不傳名 … 其後 … 立祠妥靈之意, 陳達而迄, 今未果矣. 惟我 聖上御極以來, 凡所以獎忠節, 褒孝烈之舉, … 今此三賢之未享俎豆, 實爲 昭代闕漏之典. 本府有崇節祠, 故府使宋象賢, 金鍊光, 副元帥劉克良, 生長此土, 節死壬辰之人, 而 朝家賜額設祭之處也. 就此一祠, 并享三人則, 節義咸萃, 事面允當, 乞 命該曹稟處焉.”

립하여 영령을 봉안하고 향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새로운 사우를 건립하지 않고 개성에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 殉節한 세 사람을 모신 송절사가 있으니 여기에 조 의생, 임선미, 맹씨 3인을 함께 배향을 하여 향사를 지낸다면 모두 절의로 순절한 사람이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이 상소에 대하여 정조는 “杜門洞 大學生 세 사람을 崇節祠에 배향하려는 것은 朝家에서 절의를 권장하는 도리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시행하라.”⁶¹⁾고 윤허를 내렸다.

그러나 정조는 7월 26일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여 하교를 내렸다.

지난번 송도 유수의 상소에 의거하여 태학생 임선미 등 세 사람을 송절사에 함께 향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문적을 고찰해 보니 本祠의 主享은 곧 고 부사 송상현 등 세 충신이었다. 만일에 세 태학생을 함께 향사하게 된다면 位次를 정하기가 쉽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사적으로 말하더라도 저들은 곧 勝國(고려)의 節士이고 이들은 곧 本朝(조선)의 충신이어서 반드시 하나의 祠宇에다 함께 향사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임선미 등은 모두가 태학생으로 立懂한 사람들이니 本府 學宮의 곁에다 별도로 한 칸의 屋宇를 세워 祠版을 안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⁶²⁾

이 하교에 의하면 이미 주향이 배향되어 있는 송절사에 세 사람을 함께 배향할 경우 位次를 정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므로 학궁(성균관) 곁에 별도의 사우를 세워 세 사람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것

61) 『正祖實錄』, 위와 같은 곳.

62) 『正祖實錄』, 권16, 7년 7월 26일(을묘)조, 제45집, 387쪽. “向因 松留應旨疏, 太學生, 林先味等三人, 有并享崇節之命. 而伊後取考文蹟, 本祠立祠立享, 卽故府使 宋象賢三忠臣也. 若以三學生并享則, 位次既有難便之端焉. 且以事蹟言之, 彼是 勝國節士, 此則 本朝忠臣, 未必并享一祠, 况先味等. 俱以太學生立懂, 本府學宮之傍, 則別建一祠屋宇, 以爲妥靈藏板所.”

이 表節祠가 건립하게 된 유래이다. 표절사는 우부승지 趙興鎭이 글씨를 써서 表節과 彰節, 獎節의 賜額이 내려졌다.

순조 8년(1808, 무진)에는 유생들의 上言으로 直提學 成思齊를 追配 하였고⁶³⁾, 2년 후인 同王 10년(1810, 경오)에는 또 다시 유림의 상소로 贊成事 朴門壽를 표절사에 배향하였다.⁶⁴⁾ 그리고 同王 22년(1822, 임오)에는 유림의 상소로 禮儀判書 閔安富와 金冲漢 두 사람을 추가로 배향하였다.⁶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문동 72현은 영조조에 논의가 되어 정조조에 사우를 건립하여 순조조에 이르기까지 7명이 배향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구홍을 표절사에 배향하기 위한 노력은 순조 10년(1810, 경오) 3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후손 具定麟, 具七魯, 具明遠 등이 임금에게 상소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⁶⁶⁾

그 이후 순조 23년(1823, 계미)에 또 다시 유림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해에 4道の 유생이 태학(성균관)에 통문[四道儒生通文]을 보내었고, 9월에는 태학에서 개성부 성균관에 통문을 보내게 되었다.⁶⁷⁾ 이러한 결과 그 해에 개성부 성균관의 진사들이 유수 金履載에게 구홍을 표절사에 배향하게 하여 달라는 呈狀을 올렸다.⁶⁸⁾ 개성 유수 김이재는 “節義가 탁월하니 누가 공경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상언[啓聞]의

63) 國史編纂委員會 編, 『純祖實錄』, 권11, 8년 3월 19일(을묘)조, 『朝鮮王朝實錄』, 제47집, 影印縮刷版(서울: 探求堂, 1970), 559쪽.

64) 『純祖實錄』, 권13, 10년 9월 10일(임술)조, 제47집, 665쪽.
同王 34년 5월 30일(갑오)에 忠顯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65) 『純祖實錄』, 권25, 22년 12월 26일(병인)조, 제48집, 213쪽.

66) 『松隱先生實紀』, 권2 「上疏」, 24面 後~26面 後.

67) 『松隱先生實紀』, 권2 「太學通文」, 26面 前~27面 後.

68) 『松隱先生實紀』, 권2 「開城府成均館進士呈本營文」, 27面 後~29面 後.

『純祖實錄』에 의하면 김이재는 23년 3월 22일(신묘)에 개성부 유수로 명을 받았다.

일이 중대하니 공의가 더욱 성숙되기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답[題]을 내렸다.

동왕 24년(1824, 갑신) 2월에는 4道の 유생인 경기도 진사 金台煥, 충청도 진사 洪羲鼎, 경상도 진사 尹鍾大, 강원도 진사 韓光雋 등을 대표로 143명의 연서로 개성부에 정장을 올렸다.⁶⁹⁾ 그리고 동왕 24년(1824, 갑신) 11월에 개성부 유생 190인이 연명으로 우수 李龍秀에게 정장을 올렸다.⁷⁰⁾ 우수 이용수는 “공의로 한결같이 말하니 다시 누가 더 이상 다른 말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직 서서히 상언을 논하여야 하니 몸을 신중히 하여 생각하라.”고 답하였다.

그 이후 동왕 25년(1825, 을유) 3월에는 또 다시 4道の 유생인 경기도 진사 김태환, 충청도 幼學 金基厚, 경상도 진사 李孚豹, 강원도 진사 한광준 등이 개성부에 정장을 올렸으나⁷¹⁾ 끝내 우수로부터 임금에게 상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홍을 표절사에 배향하기 위한 유림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의 상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 이미 서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왜냐하면 순조 22년 이후로는 두문동 72현에 대한 표절사의 배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논의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고종 8년(1871, 신미)에 이르면 서원의 폐단이 가중이 되어 대원군에 의하여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표절사도 毀撤이 되기에 이른다.⁷²⁾

69) 『松隱先生實紀』, 권2 「四道儒生呈開城府文」, 29面 後~31面 前.

70) 『松隱先生實紀』, 권2 「開城府儒生呈本營文」, 31面 後~36面 前.

『純祖實錄』에 의하면 이용수는 24년 4월 15일(무신)에 개성부 우수로 명을 받았다.

71) 『松隱先生實紀』, 권2 「四道儒生再度呈開城府文」, 36面 前~38面 後.

72)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고종 5년(1868, 무진)부터 시작되었는데 고종 8년에는 전국의 書院과 祠를 정리하여 전국에 47개(書院 27개, 祠 20개)만 남기고 모두 훼손을 하였다.

그 이후 1935년(을해)에 유림에 의하여 개성에 두문동 서원이 건립되어 두문동 72현을 배향하였다. 두문동 서원은 4室 22間으로 이루어졌는데 4室은 表節室, 殉節室, 抗節室, 靖節室이다. 표절실은 殉節班, 抗節班, 靖節班의 3반으로 나누어 두문동 72현을 배향하였고, 순절실에는 순절반, 향절실에는 향절반, 정절실에는 정절반으로 나누어 杜門洞外 諸賢을 배향하였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두문동 72현			두문동외 제현		
	표절실			순절실	향절실	정절실
실						
반	표절반	향절반	정절반	순절반	향절반	정절반
봉안위 수	17	31	7	11	33	20
소계	55			64		
총계	119 位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문동 서원에는 두문동 72현으로 55위를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2현의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문동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 함께 순절 내지는 절의를 지킨 고려의 두문동외 제현으로 64위, 총 119위를 봉안하고 있다.

구호는 '표절실' '향절반'에 봉안되어 있는데 봉안문은 다음과 같다.

아! 선생은 일찍이 圃翁(정몽주)과 더불어 도의를 맺고 우리의 道가 쇠퇴함을 근심하고 불교를 배척하였다. 이에 학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일이 반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가 망하였다. 이름을 고치고 절의를 지켜 망국 신하의 의지 나타내니 '의롭지 못한 부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고 하였다. 드디어 박문수, 성사제와 더불어 뜻을 말하기를 '백이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하고 부조현에 오르니 그 절개 천추(千春)⁷³⁾에 우뚝하였도다. 만수산은 푸른데 두문동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고 新朝의 출사를 부끄럽게 여기니

문득 橫厄이 닳쳤다. 빛나고 빛나는 붉은 명정에 고려 시중이라 쓰게 하고 의암동의 문허니 유택[幽堂]이 무너지지 아니하는도다. 배알하고 사당에 봉안하오니 제현과 함께 하소서. 좋은 해 좋은 날을 택하여 감히 의식 거행하오니 영령이여 편히 잠드소서.⁷⁴⁾

6. 결론

지금까지 송은 구흥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두문동 72현의 節義精神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논의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에 전반적으로 내재된 정신은 두문동 72현의 義理精神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문동 72현의 절의정신은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나타난 한국유학의 의리정신의 원류⁷⁵⁾로서 이후 한국인의 出處觀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두문동 72현이란 말은 고려 말의 충신열사를 지칭하는 말로 고려의 멸망과 동시에 생겨난 용어이나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영조이후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3) '千春'은 '千秋'와 같은 말이다. 뒤에 나오는 '만수산은 푸르다[靑]'는 문장과 의미를 맞추기 위하여 '천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74) 『杜門洞書院誌』, 권2 「松隱具先生奉安文」, 16面 前後.

“嗚呼, 先生, 早與圃翁, 結以道義, 憂吾道衰, 斥佛是事. 興學未半, 國事已矣. 改名高舉, 罔僕之志, ‘不義富貴, 於我浮雲’. 遂與朴成, 言志成文, ‘伯夷何人, 而我何人’ 不朝之峴, 壁立千春. 萬壽山靑, 杜門不開, 爲耻新朝, 動輒橫來. 煌煌丹旌, 高麗侍中, 義菴之洞, 幽堂不崩. 葛若躋祠, 與諸賢同. 以歲之正, 以月之令, 敢舉縉儀, 靈其安定.”

75) 윤사순, 「16세기 조선 유교 사회와 竹川(朴光前)의 선비정신」,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2호(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년 2월), 6쪽 참조.

둘째로, 구홍의 연구자료로는 『송은선생실기』와 『송은선생실기 보유』에 거의 다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구홍은 고려조에 문하좌시증의 최고의 관직에 오른 인물로 고려의 사직과 함께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킨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넷째, 두문동 72현을 향사하기 위하여 정조조에 표절사가 건립이 되어 순조조에 이르기까지 7명만 배향되었을 뿐 구홍을 표절사에 배향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향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후에 유림에 의하여 두문동 서원이 건립되어 표절실 항절반에 배향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 기본 문헌

具鴻, 『松隱先生實紀』, 具然雨·具然侃 等編, 大邱: 花樹亭, 1909.

具鴻, 『松隱先生實紀補遺』, 具然雨·具泰書 編, 筆寫本.

具鴻, 『綾城具氏文集』, 影印本.

具鴻, 『松隱先生文獻錄』, 影印本.

具鴻, 『松隱先生杜門史』, 影印本, 1984.

• 제2차 문헌

高麗崇義會 編, 『麗末忠義列傳』, 서울: 고려승의회 출판부, 1994.

孔聖學 編, 『杜門洞書院誌』, 開城: 杜門洞書院事務所, 1937.

具鳳齡, 『栢潭先生文集』, 安東: 東岡書堂, 1934 重刊.

具然侃, 『謹窩集』, 具琮書 編, 大邱: 1933.

具然雨, 『琴愚集』, 具泰書 編, 大邱: 琴愚堂, 1933.

具然雨, 『琴愚續集』, 具滋善 編, 大邱: 琴愚堂, 1999.

奎章閣 所藏, 『麗朝忠烈錄』, 筆寫本, 奎章閣 圖書番號 12713.

金履陽, 『金履陽文集』, 筆寫本.

金冲漢, 『樹隱先生實紀』, 金學周 編, 南原: 杜慕齋, 1923.

金澤榮 編, 『崧陽耆舊傳』.

閔安富, 『農隱先生實紀』, 1924 重刊.

朴彭年 等奉教撰 ; 成三問 等奉教註, 『車原頰雪冤記』, 筆寫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456.

_____, 『車原頰雪冤記』, 車原頰雪冤記 編纂委員會 編譯, 서울: 朝光出版社, 1998.

宋祖憲 編, 『景賢祠誌』, 1936.

王廣謨 句解, 『孔子家語』.

윤사순, 「16세기 조선 유교사회와 竹川(朴光前)의 선비정신」,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2호, 대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년 2월.

李若烈, 『訥窩文集』, 1934.

林先味, 『勝國忠臣杜門洞事實』.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8 중간.

編輯部 編, 『論語集註』, 影印本, 서울: 京城書籍業組合, 1918.

洪暹, 『忍齋先生文集』, 1935.

黃景源, 『江漢集』, 1790.

• 역사서

『高麗史』.

國史編纂委員會 編, 『定宗實錄』, 『朝鮮王朝實錄』, 제1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68.

國史編纂委員會 編, 『太宗實錄』, 『朝鮮王朝實錄』, 제1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68.

國史編纂委員會 編, 『世宗實錄』, 『朝鮮王朝實錄』, 제4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68.

國史編纂委員會 編, 『仁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32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71.

國史編纂委員會 編, 『英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42, 43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70.

國史編纂委員會 編, 『正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45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70.

國史編纂委員會 編, 『純祖實錄』, 『朝鮮王朝實錄』, 제47, 48집, 影印縮刷版, 서울: 探求堂, 1970.

조선왕조실록 CD-ROM 간행위원회 편,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9.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Abstract

Doomundong 72 Sages and Songeun Koo Hong's Fidelity

Koo, Bon-Wook

Songeun(松隱) Koo Hong(具鴻) was one of the Doomundong 72 Sages(杜門洞 72賢) in the late years of Koryeo Dynasty(高麗). The term of Doomundong 72 Sages, which originated from what is called Confucius' Pupils, came to be used as one that meant fidelity(節義精神) with the acceptance of Neo-Confucianism.

As Koryeo Dynasty perished, Koo Hong rejected to follow the new one, Joseon Dynasty, clarified his will along with other sages on the hill Boojo Hyeon(不朝峴), and then, living in Doomundong, died.

It was early in Joseon Dynasty(朝鮮) that they called Doomundong the place where many sages hid who stuck to fidelity toward Koryeo Dynasty, and referred to them as Doomundong 72 Sages.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se terms never showed up in Kings' Journals(王朝實錄) until YoungJo(英祖),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was a strict banning of mentioning them.

During the ruling period of YoungJo the discussion about the Doomundong 72 Sages got started. Putting a great value on their fidelity toward the previous dynasty, he praised and made sacrifices to them. JeongJo(正祖), following the YoungJo's will, had Pyojeol-Sa(表節祠) built to the memory of them. Pyojeol-Sa was torn down in 1871 during the ruling period of KoJong(高宗), rebuilt in Kaeseong(開城) in 1935, and named Doomundong-Sewyon(杜門洞 書院).

It is significant that the fidelity of the Doomundong 72 Sages, as the origin of Korean Confucian fidelity, has had a great effect on Korean political ideology(出處) ever since.

Key Word

Koo Hong, Songeun, Doomundong, Doomundong 72 sages, the Hill Boojo Hyeon, the Hill Gwekwon Hyeon, Pyojeol-Sa, Doomundong-Sewyon